

문학석사 학위논문

영어 전치사구 주어구문에 대한 연구

2006년 2월

부 경 대 학 교 대 학 원

영어영문학과

오 유 진

문학석사 학위논문

영 어 전 치 사 구 주 어 구 문 에 대 한 연 구

지 도 교 수 박 순 혁

이 논 문 을 문 학 석 사 학 위 논 문 으 로 제 출 함

2006년 2월

부 경 대 학 교 대 학 원

영 어 영 문 학 과

오 유 진

오유진의 문학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05년 12월 22일

주심 언어학 박사 김 은 일

위원 영어학 박사 전 춘 배

위원 언어학 박사 박 순 혁

목 차

영문초록.....	ii
1. 서론.....	1
2. 이론적 배경.....	3
2.1 주어의 정의.....	3
2.2 동사구내 주어 가설.....	8
2.3 최소주의의 일치와 이동.....	11
3. 전치사구 도출 구문의 특징.....	15
3.1 전치사구 구문과 종류.....	15
3.2 비도출 전치사구.....	17
3.3 도출 전치사구.....	20
3.3.1 일반적 특징.....	21
3.3.2 주어적 특징.....	26
3.3.3 비주어적 특징.....	30
4. 전치사구 도출 구문의 문제점과 제안.....	32
4.1 전치사구 이동.....	32
4.2 전치사구 도출의 문제점.....	35
4.3 전치사구 도출과 EPP-자질.....	38
4.3.1 음성적 변위.....	39
4.3.2 EPP-자질의 일반화.....	42
5. 결론.....	47
참고문헌.....	49

A Study of the PP Subject Construction in English

Yujin Oh

*Department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Graduate School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It has been known that the subject of the sentence serves *as* the *agent* of the state or activity denoted by the verb. It is generally expressed by an NP, which bears the *nominative case*. There *are*, however, cases where categories other than NP seemingly occupy the subject position of the sentence. In this thesis, I will examine the sentences that *are* initiated by the PP, by exploring the possibility that the PP *can* function *as* the subject. The PPs in the initial position of the sentence *are* divided into two types, depending upon the feature involved in the derivation: the inverted PPs *and* the non-inverted PPs. The non-inverted PPs *are* the cases where the PP originates in the [spec, ν P] *and moves* to the [spec, TP], which is triggered by the uninterpretable EPP-feature of T in the sense of Chomsky (1995). The inverted PPs *are*, on the other hand, the cases where the PP is base-generated in the complement

of the verb *and moves* to [spec, TP], crossing over the subject in [spec, ν P]. Furthermore this *movement* isn't *motivated* by the EPP-feature in Chomsky(1995), where the *movement* requires the operation, Agree *as* one of its prerequisites.

To explain this inverted PP *movement* to [spec, TP], Park (1999), Jang(2000), Kim(2001) and Lasnik (2001) *proposed* the *phonetic* requirement of EPP-feature, which is not contingent on the Agree but the force for the *movement* to [spec, TP]. And this *phonetic* EPP-feature dictates that the subject *position*, [spec, TP] *can* be filled with the syntactic object with the *phonetic* content.

This *paper* is organized *as* follows: in chapter 2, I introduce the definition of the subject, the VP-internal subject hypothesis *and* the Minimalist Program. In chapter 3, I discuss the *properties* of the PPs in the initial *position*. In chapter 4, I *prove* that the inverted PPs *move* to [spec, TP] not by the EPP-feature but by the *phonetic* EPP-feature.

1. 서론

영어문장의 기본 구조는 두 개의 성분, 주부와 술부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러한 문장의 주어는 주격과 관련되기 때문에 격을 가질 수 있는 명사구(NP)만이 주어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문법 범주(categories)를 고려할 때, 영어에는 명사구가 아닌 범주들이 문장의 주어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들이 있다.

- (1) a. Into the bar sauntered the sheriff.
- b. There arrived *a man* last night.
- c. "*Don't talk to me*", said the little girl.
- d. Specific to Koreans *are* the *problems* of adoption.
- e. Quietly flows the Han.

(Culicover & Levin 2001)

(1)의 예문들은 전치사구, 허사구, 인용구, 형용사구, 부사구 등이 문두에 위치하는 영어 문장들이다. 그러나 문법 범주로는 NP가 아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요소들이 문장에서 주어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여러 비명사구 구문들 속에서 (1a)와 같은 [PP V NP]구문에서 전치사구가 주어가 될 수 있는지를 최소주의의 틀 속에서 연구한다.

최소주의 이론에 따르면 주어는 [spec, *v*P]에서 생성되어 [spec, TP]로 이동한다. 이러한 이동은 일반적으로 T의 비해석성 자질인 EPP-자질을 충족

시키기 위한 것으로 인식된다. 그리고 EPP-자질 충족을 위한 이동이라는 것은 활성화된 비해석성 자질에 의한 일치(Agree)가 수반되어야 한다. 즉, EPP-자질 충족을 위한 이동은 일치 과정을 수반하며 그 이동의 착지점이 [spec, TP]가 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PP V NP] 구문은 기저 생성 구조에서부터 두 경우, 비도출 전치사구 구문과 도출 전치사구 구문으로 나누어진다. 비도출 전치사구 구문의 경우는 일치과정을 수반하는 EPP-자질에 의해 [spec, TP]로의 이동이 일어나는 것이며, 도출 전치사구의 구문의 경우는 일치 과정을 수반하지 않고 이동의 효과를 보인다. 여기서 도출 전치사구 구문 분석은 EPP-자질의 충족이 일치와 무관하게 일어나야 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논문은 Park(1999), Jang(2000), Kim(2001), Lasnik(2001)등에서 제안하는 음운부 효과만을 가져다주는 새로운 종류의 EPP-자질을 받아들인다. 따라서 도출 전치사구 구문은 이러한 음성적 변위만을 유발할 수 있는 EPP-자질에 의해 [spec, TP]라는 주어자리로 이동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본 논문은 더 나아가 이처럼 음성적 변위를 유발하는 EPP-자질이 허사구, 인용구, 형용사구, 부사구 도출 구문 등으로 확대 적용 할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2장은 주어에 대한 개념 Aarts(1997), Keenan(1976), Chomsky(1995)를 통해 살펴보고, 주어의 생성위치와 이동에 대하여 최소주의 이론을 소개한다. 제 3장은 전치사구 도출 구문의 일반적인 특징과 주어적, 비주어적 특징들을 분석한다. 제 4장은 전치사구 도출 구문을 최소주의 틀 내에서 분석하며 그 문제점을 제시하고 해결책을 제안한다. 그리고 제 5장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결론짓는다.

2. 이론적 배경

본 연구는 [PP V NP]구문에서 전치사구의 주어 기능을 검증하기 위하여 주어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선행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주어에 대한 기초 정의와 동사구내 주어가설 그리고 최소주의의 일치와 이동 개념을 소개한다.

2.1 주어의 정의

문법이론에서 주어는 많은 논의의 대상이 되어왔다. 이러한 주어에 대하여 Keenan(1976)과 Aarts(1997)는 다음과 같은 특성들을 서술한다. 우선 Keenan(1976)에 대하여 알아보자.

(2) Subjects *are normally* the leftmost occurring NP in sentences.

(Keenan 1976: 319)

(2)의 정의에 의하면 영어 문장에서 주어는 가장 왼쪽에 나타나는 명사구이다.

이러한 정의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다음 (3)의 예문들을 통해서 살펴보자.

(3) a. John killed the bird.

b. They passed the exam.

(3)에서 주어는 가장 왼쪽에 나타난 명사구인 *John*과 *they*로 잘 설명되어진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문장에서는 주어가 가장 왼쪽에 나타나는 명사구라는 정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4) *The bird, John killed.*

(4)에서 *the bird*는 (2)의 정의에 따라 주어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문장의 실제 주어는 *John*이 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주어는 가장 왼쪽에 나타나는 명사구라는 정의를 모든 문장에서 일반화하기가 힘들다.

주어에 대한 Keenan(1976)의 또 다른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Subjects normally express the agent of the action, if there is one. (Keenan 1976: 321)

(5)는 주어를 행동의 행위자 관점에서 정의하려는 의도이다. 이 정의에 의하면 (4)의 *The bird, John killed*의 주어는 *the bird*가 아니라 *John*이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자 주어 개념은 다음과 같은 문장에서 문제점이 발생한다.

(6) a. *John was killed by Bill.*

b. *John is tall.*

행위자 주어 개념에 따르면 (6a)의 주어는 *Bill*이고 (6b)의 경우에는 주어가

없다. 그러나 (6a)와 (6b)의 실제 주어들은 *John*이다.

한편, Aarts(1976)는 주어에 대하여 전통문법에서 의미적으로 그리고 통사적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은 특성들을 서술한다.

(7) Semantic Characteristics of Subject

The subject of *a* sentence is defined as the constituent that on the one hand, tells us who *performs* the *action* denoted by the verb and on the other hands, tells us who or what sentence is about. (Aarts 1997: 8)

(7)의 주어에 대한 의미적 정의에 따르면 주어는 동사에 의해 선택되는 행위자 또는 문장의 대상이다.

이러한 정의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다음 예문을 통해 알아보자.

(8) a. The *police* arrested the bank robber.

b. That stupid waiter gleefully spit soup all over *my* trousers.

c. The stuntman smashed sixteen cars in five minutes.

(8)의 예문들에서 (8a)의 주어 *the police*는 동사 *arrest*의 행위자이고, (8b)의 주어 *that stupid waiter*는 동사 *spit*의 행위자이고, (8c)의 주어 *the stuntman*는 동사 *smash*의 행위자가 된다. 그러나 위의 의미적 주어는 다음의 예문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9) a. This car stinks.

b. It is raining in England.

(9a)에서 *this car*가 동사 *stink*의 행위자가 아니며, (9b)에서 *it*이 *is raining*의 행위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주어는 *this car*와 *it*이 이 문장에서 주어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주어를 의미적 관점에서 정의내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

Aarts(1997)는 또한 주어에 대한 통사론적 특성들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10) Syntactic Characteristic of Subject

a. Subjects are usually NPs.

b. In a statement, the subject is the first NP.

c. Subjects are obligatory.

d. Subjects determine the form of the verb.

e. The subject changes position in sentences which are used to ask questions with 'yes' or 'no' as an answer.

f. A so-called tag question can be added to the Subject of a sentence.

(Aarts 1997: 13)

(10)를 이용하여 (9a) 문장의 주어를 다시 살펴보자.

(9) a. This car stinks.

위 통사적 정의에 따라 (9a)의 주어 *this car*는 문장에서 첫 명사구이고, 의무적이며, 동사 *stinks*와 일치를 이루고 있다.

또한 (9a)는 다음과 같이 의문문과, 부가의문문을 생성한다.

(11) a. *Does this car stink?*

b. *This car stinks, doesn't it?*

(11a)의 의문문에서 *this car*의 위치가 조동사 *does* 뒤로 바뀌었고, (11b)의 부가의문문에서도 대명사 *it*으로 대체되었다. 이를 통해 (4a)의 주어는 *this car*가 될 수 있다.

주어에 대한 또 다른 논의는 Chomsky(1965)에 의해 정의되어지는데 다음과 같다.

(12) Subjects are an NP that is immediately dominated by S(sentence),
[NP, S] (Chomsky 1965)

(12)의 정의에 의하면 주어는 S에 의해 직접 관할되는 명사구이기 때문에 위(6a)의 *John was killed by Bill.*의 경우 *John*이 주어가 될 수 있다.

그러나 Chomsky(1981)에는 Inflectional Phrase(IP)를 소개하여 주어를 [spec, S]에서 [spec, IP]로 나타낼 수 있었다. 그리고 1995년에는 IP를 Tense Phase(TP)로 대체시켜 주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3) Subject of : [NP, TP] (Chomsky 1995)

이러한 (13)의 정의를 최소주의 이론 하에서 재해석하면, 주어는 TP의 *spec* 자리에 나타나는 요소이다.

지금까지 문장의 주어를 정의함에 있어서 통사적 특징과 의미적 특징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특징으로 주어를 정의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또한 밝혔다. 본 논문에서는 Chomsky의 형상(configuration)에 의한 주어 정의를 받아들인다. 따라서 전치사구 도출구문에서 도출된 전치사구의 위치를 Chomsky의 [*spec*, TP]와 관련하여 논의한다.

2.2 동사구내 주어 가설(VP-internal Subject Hypothesis)

1980년대 후반부터 Kitagawa(1986), Fukui & Speas(1986), Larson(1998), Sportiche(1998), Koopman & Sportiche(1998)등에 의하여 주어는 [*spec*, TP]에서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spec*, VP]에서 생성되어 [*spec*, TP]로의 이동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이 동사구내 주어 가설(VP-internal Subject Hypothesis)이다. 이러한 동사구내 주어 가설은 유동 양화사(floating quantifiers)구문, 관용구(idioms)구문과 관련지어 일반화 되어지고 있다.

Koopman & Sportiche(1998)에 따르면 유동 양화사의 위치는 주어 이동의 근거라고 한다. 그들에 의하면 유동 양화사와 관련 명사구는 기저구조에서 하나의 구성요소이다. 그러나 통사적 도출 과정에서 유동 양화사와 명사구는 분리되어 상승한다.

다음(14)의 예를 통하여 살펴보자.

(14) a. The carpets will have been *all* dusted for two hours.

b. The carpets will have *all* been dusted for two hours.

c. The carpets will *all* have been dusted for two hours.

(14)에서 주어 *the carpets*와 양화사 *all*은 기저구조에서 하나의 구성요소 [the carpets *all*]이다. 이러한 [the carpets *all*]은 처음에 *been*과 *dusted*사이
에 위치하고 그 자리에서 유동 양화사 *all*과 명사구 *the carpets*는 분리된
다. 분리된 후 명사구 *the carpets*는 *all*을 남겨두고 [spec, TP]로 이동하
여 (14a)와 같은 문장이 생성된다. 또는 (14b)에서 보듯 [the carpets *all*]이
함께 *have*와 *been* 사이로 상승된 후 여기서 *all*과 *the carpets*가 분리되고
명사구인 *the carpets*만이 [spec, TP]로 이동된다. (14c)도 마찬가지로 양화
사 *all*과 분리된 *the carpets*만이 상승되어 [spec, TP]를 차지한다. 만일,
한 구성요소인 유동 양화사와 명사구가 [spec, TP]에서 바로 생성된다면
(14)와 같은 유동양화사와 명사구가 분리된 경우들을 설명할 수 없다.

Radford(2003)에 의하면 관용구(idioms)구문 역시 동사구내 주어+보어
대한 근거가 된다고 한다. 그에 의하면 관용구 구문들은 단어 개별의 의미
를 가지지 못하고 하나의 구성요소로 형성되어 특별한 의미를 표현한다. 그
리고 하나의 구성요소로써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주어+동사+보어의 구조로
고정되어 있다.

다음 예문을 보자.

(15) All hell broke loo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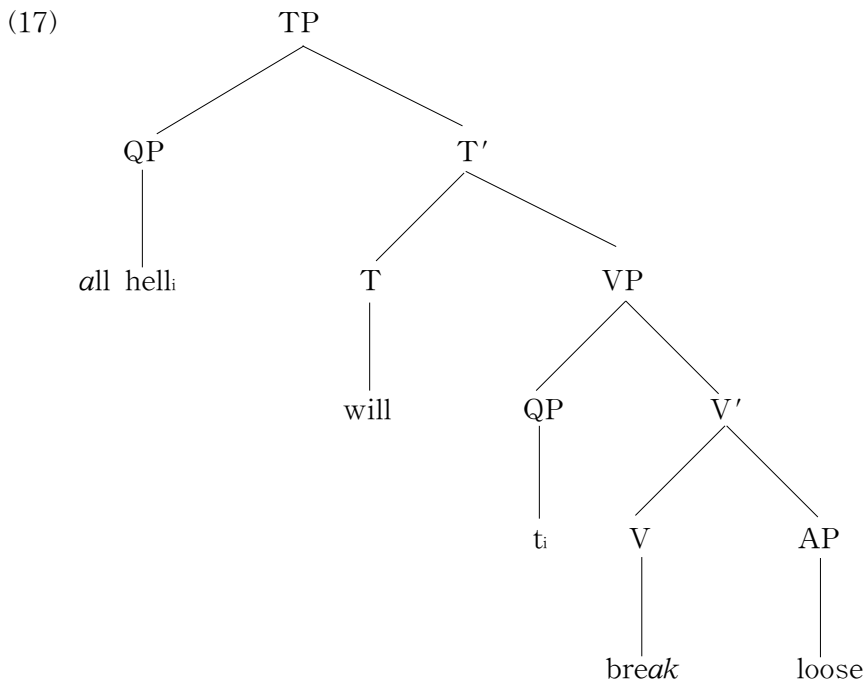
(15)는 주어 *all hell*, 동사 *broke*, 보어 *loose*의 순서로 형성되어 있는 관용구 구문이다. 이러한 관용구 구문은 고정된 구조를 형성하기 때문에 이 사이에는 어떠한 어휘도 삽입될 수 없다. 그러나 다음 (16)과 같은 예문들이 있다.

(16) a. All hell *will break* loose.

b. All hell *has* broken loose.

c. All hell *could have* loose.

(16)은 고정된 구조를 형성하는 관용구 구문에서 (16a)에서는 주어와 동사 사이에 조동사 *will*, (16b)에서는 *has*, 그리고 (16c)에서는 *could*가 삽입되어 있다. (16a)를 통사구조에서 분석해 보자.



영어 통사 구조에서는 동사와 보어가 결합되는 v' 가 먼저 형성되어지기 때문에 *break loose*가 먼저 형성된다. 그리고 관용구 구문의 특성인 주어, 동사, 보어의 고정된 구조에 의해 *all hell*은 v' 와 자매어(sister) 위치인 QP에서 생성되고 *all hell break loose*라는 VP 관용구 구조를 형성한다. 이러한 VP 구조는 T의 *will*과 결합하여 T'인 *will all hell break loose*가 형성되고 논항이동(A-movement)를 통하여 [spec, TP]로 *all hell*이 이동한다.

이와 같이 VP내에서 관용구가 생성되면 주어+동사+보어라는 고정된 구조를 유지하면서 조동사 삽입도 가능하다. 만일 관용구 구문에서 주어가 [spec, TP]에서 생성된다면 주어+동사+보어라는 고정된 어순이라는 제약에 조동사가 삽입되는 경우를 설명할 수 없다.

본 논문에서도 위 증거들을 통해 동사구내 주어 가설을 따르고 주어를 [spec, VP]에서 기저 생성 된다고 본다.

2.3 최소주의의 일치와 이동

지금까지 주어는 [spec, VP]에서 [spec, TP]로의 이동이라고 하였다. 여기서 의문은 “왜 동사구 내의 주어가 [spec, TP]로 이동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다. 최소주의 틀 속에서 주어의 이동 과정을 살펴보자.

최소주의 이론에 따르면 언어 도출 과정에서 불필요한 이론과 규칙은 제거되어야 하고 가장 경제적인 원리에 입각하여 최적합의 선택에 의해 언어 도출이 일어나 완전해석원리(Principle of Full Interpretation)를 준수한다. 만약 연산체계가 완벽하다면 비해석성 자질들(uninterpretable features)

이 존재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비해석성 자질들이 여전히 존재하며, 도출과정에서 제거된다.

이러한 비해석성 자질 중 주어와 관련된 자질들은 다음과 같다.

(18) a. Φ -자질 (Φ -feature)

b. 격 자질 (Case feature)

c. 시제 자질 (tense feature)

(18a)의 Φ -자질은 인칭(person), 수(number), 성(gender)등의 대명사적 자질을 뜻하고, (18b)의 격 자질은 모든 명사구의 격 자질을 뜻한다. 그리고 (18c)의 시제 자질은 동사에 있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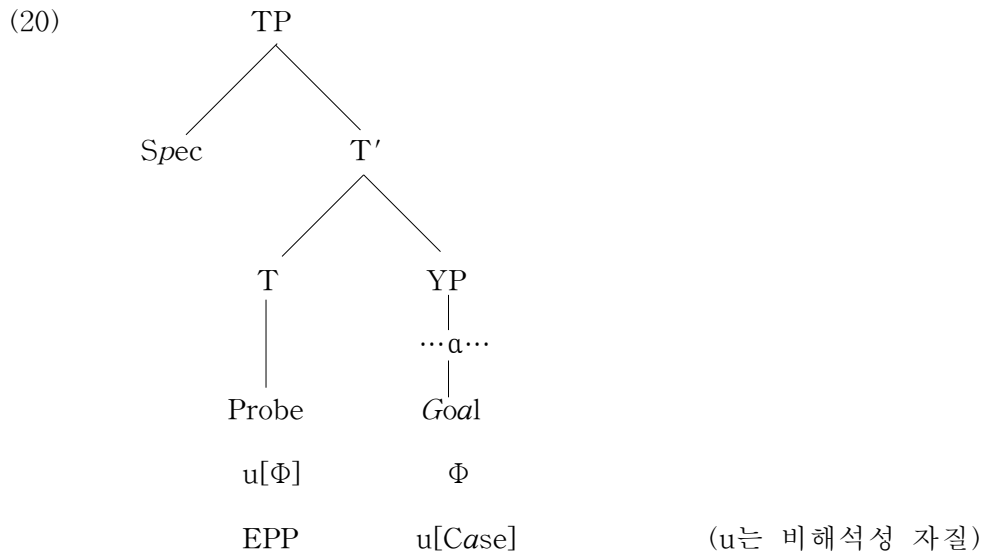
(19) EPP-자질

(19)의 EPP는 Chomsky(1981)에 의해 처음 제안되었는데 모든 절에는 반드시 주어가 있어야 한다는 통사적 원리이다. 그리고 Chomsky(1993)에서 EPP는 격 이론의 일부 현상으로 간주하여 EPP충족이 독립적이라기 보다는 격 자질이나 일치 자질의 점검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그러나 Chomsky(1995)에서는 EPP를 T에 있는 강자질로 설명하고 이러한 강자질을 가지는 기능핵이 구조에 도입될 때 외현통사부에서 그 강자질을 점검 받아야 한다는 자질점검 요건으로 보고 격 자질, 일치 자질과는 분리시켰다. 또한, 모든 이동은 형식자질의 점검을 위해 일어난다는 가정에 따라 EPP도 하나의 자질로 취급되어 EPP는 절 구조에서 상위의 기능핵에

있는 강자질로 간주되었다. 그리고 Chomsky(2001)에서는 자질점검을 위한 이동을 장거리 일치관계로 대체하였다. 이 분석에서 EPP는 자질점검과는 관계가 없으며 단지 어떤 기능핵이 지정어를 가질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그리고 T가 가지는 자질 중에 하나로 EPP-자질을 간주하고 이 자질은 비해석성으로서 삭제되어야 하는 것으로 본다.

본 논문에서는 Chomsky(1995, 2001)에 따라 T가 가지는 비해석성 자질은 Φ -자질과 EPP-자질로 간주하고 이러한 T의 비해석성 자질들이 제거되는 과정을 다음 구조를 통하여 살펴보자.



일반적으로 비해석성 자질들은 그 자체로는 값(value)를 가지지 못하지만 대응하는 해석성 자질과의 일치를 통해 그 값을 부여받고 제거된다. (20)에서 탐색자(Probe) T의 비해석성 Φ -자질들은 목표자(Goal)의 해석성 Φ -자질들과의 일치를 통해 값을 받고 제거된다. 그리고 비해석성 격자질은 탐색자

T의 형식자질에 의해 격이 표시 되고 결국 비해석성 자질이 제거되게 된다. 이러한 연산 작용이 일치(Agree)이다.

(20)에서 T의 또 다른 비해석성 자질인 EPP-자질 역시 완전해석원리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제거 되어야 한다. 최소주의에서 EPP-자질 제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순수 병합(외부 병합)이고, 다른 하나는 이동(Move)을 통한 내부 병합이다. 여기서 EPP-자질 제거를 위한 이동(Move)을 일치(Agree)+수반이동(Pied-Piping)+병합(Merge)라는 복합현상으로 간주한다(Chomsky 2000, 2001). 즉, (20)에서 앞서 일치가 일어난 목표자가 EPP-자질 제거를 위해 이동이 일어나고 그 착지점은 [spec, TP]자리이다.

이를 통해 동사구내 주어가 이동하는 원인은 T의 EPP-자질 제거를 위한 것이고 그러한 이동은 반드시 비해석성 Φ -자질이 제거되고 격을 할당받는 통사적 일치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3. 전치사구 도출 구문의 특징

전치사구가 문두에 오는 경우는 대체로 [PP V NP]의 외현적인 구조를 가지나 심층구조를 통해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진다. 이 장에서는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지는 구조를 살펴보고 그 특징들을 소개한다.

3.1 전치사구 구문의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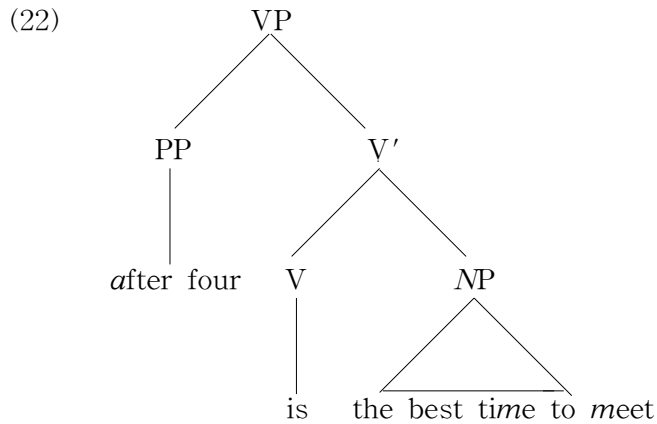
다음과 같은 [PP V NP]구문을 보자.

(21) a. After four is the best time to meet.

b. Under the table is a good place to store a package.

(21)은 전치사구 *after four, under the table*이 문두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치사구들은 기저구조에서 동사구내 서술어에서 생성된 것이 아니라 [spec, VP]에서 생성된 것이다.

(21a)구문의 구조를 살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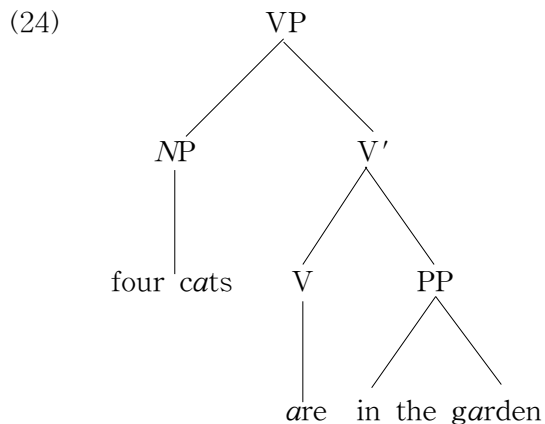


(22)구조에서처럼 전치사구가 [*spec*, VP]에서 기저 생성된 경우를 본 논문에서는 비도출 전치사구(non-inverted PP) 구문이라 하겠다.

이와는 다르게 [PP V NP]구문에서 문두의 전치사구가 동사구내 서술어에서 기저 생성되는 경우들이 있다. 다음 (23)의 예를 보자.

- (23) a. In the garden are four cats.
 b. Into the room walks a woman.

(23a)의 문두에 위치한 전치사구 *in the garden*는 다음과 같은 구조에서 도출되었다.



(24)에서 전치사구, *in the garden*은 [spec, VP]가 아닌 동사구내 서술어 내에서 기저 생성되어있다. 본 논문에서는 (24)와 같이 동사구내 서술어에서 기저 생성된 전치사구 구문을 도출 전치사구(inverted PP)구문이라 하겠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PP V NP]구문은 기저 구조에서의 생성 위치에 따라 비도출 전치사구 구문과 도출 전치사구 구문이 있었다. 다음 절에서는 이들 구문의 특징들을 소개한다.

3.2 비도출 전치사구의 특징

다음의 [PP V NP]구문들은 비도출 전치사구 구문들이다. 이러한 구문에서 전치사구가 주어적 특징이 있는지 최소주의 틀 속에서 살펴보자.

(25) a. Between six and seven will suit me.

b. Across the road was swarming with be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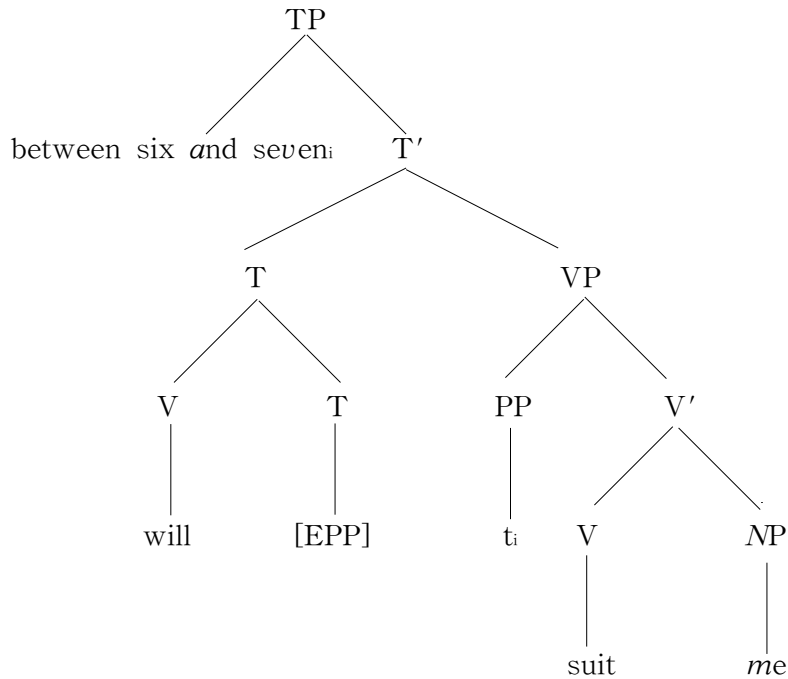
c. Across the road *appeared* to be swarming with bees.

d. Behind the *garage* is being reclaimed by the new tenants.

(Jaworska 1986)

(25)의 전치사구 *between six and seven, across the road, behind the garage*등은 기저구조에서 [spec, VP]에서 생성되고 해석성 Φ -자질과 비해석성 구조격을 가진다. 우선 (25a)의 구조를 통하여 살펴보자.

(26)



(26)에서 탐색자 T는 목표자를 전치사구 *between six and seven*에서 찾는다. 그리고 T의 비해석성 Φ -자질은 전치사구의 해석성 Φ -자질로부터 값을 받고 삭제되며 전치사구의 비해석성 구조격은 T로부터 주격의 값을 받고

삭제된다. 또한, T의 비해석성 EPP-자질 역시 제거되기 위해 T와 일치기 일어난 전치사구 *between six and seven*이 [Spec, TP]로 이동하여 EPP-자질을 삭제시킨다.

따라서 (25)의 전치사구 *between six and seven, across the road, behind the garage*등은 일반적인 명사구 주어처럼 일치기를 통한 [spec, TP]로의 이동이며 다음과 같은 정형적인 주어적 특징을 보인다.

첫째, 주어 동사 일치기 일어난다.

- (27) a. *Under the bed [isn't/*aren't] the best place to leave your toys.*
b. *Under the bed and in the fireplace [are/*is] not the best combination of places leave your toys.*

(27a)에서 전치사구 *under the bed* 주어는 단수 주어로 단수 동사 *is*와 일치를 이루고 있다. (27b)의 전치사구 *under the bed and in the fireplace* 주어는 등위 접속사 *and*를 중심으로 복수로 형성되어 있고, 동사 역시 복수 동사인 *are* 와 일치를 이루고 있다.

둘째, 의문문 형성시 주어 조동사 도치가 가능하다.

- (28) a. *Is under the bed a good place to hide?*
b. *Does after four seem to suit everyone?*

(28a)의 주어 *under the bed*는 동사 *is*와 도치를 이루고 (28b)의 주어 *after*

*four*는 동사 *does*와 도치를 이루어 의문문 형성을 하고 있다.

셋째, 부가 의문문 형성시 대명사 주어로 대체 된다.

(29) a. To *Yokohama* is not very far, is it?

b. Between six and seven suits her fine, doesn't it?

(29a)에서 주어 *to Yokohama*와 (29b)에서 *between six and seven*은 부가 의문문에서 대명사 *it*으로 대체되고 이다.

이를 통해 비도출 전치사구 구문에서 전치사구 이동은 비해석성 EPP-자질 제거를 위한 이동이었으며, 그 과정에서 일치를 수반하여 [*spec*, *TP*]로 이동하였다. 그리고 이동된 전치사구는 전형적인 주어적 특징을 보이고 있었다.

3.3 도출 전치사구의 특징

지금까지 비도출 전치사구 구문의 구조와 주어적 특징들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비도출 전치사구 구문들과 도출 전치사구 구문들이 있다. 도출 전치사구 구문들은 VP구조내 서술어 위치에서 생성되고 한정동사에 의해 지정어 자리로 전치사구 이동이 일어난다. 그러나 이러한 이동은 착지점에 따라 두 가지 의견이 대립된다. 우선 [*spec*, *TP*]로의 이동으로 보고 주어라는 견해와 주제화(*topicalization*)를 통한 [*spec*, *CP*]로의 이동이라는 견해가 논의된다.

이 절에서는 이러한 이동의 두 경우에 대해 통합적인 도출 전치사구 구문의 특징들을 살펴보고, [*spec*, *TP*]로의 이동에 대한 주어적 특징과 [*spec*, *CP*]로의 이동에 대한 비주어적 특징들도 소개한다.

3.3.1 일반적인 특징

도출된 전치사구 구문의 일반적인 특징들을 우선 살펴보자. 일반적으로 도출 전치사구 구문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것이 소위 장소어구 도치 (*Locative Inversion: LI*)구문이다. 본 논문에서도 장소어구 도치 구문을 전치사구 도출 구문의 일부로 간주하고 그 특징들을 전치사구 도출 구문에도 적용된다고 본다.

Nakajima(1996)에서 장소어구 도치구문의 동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30) Verb in *LI* are basically equal to *be* verbs. (*Nakajima* 1996: 12)

결국, 장소어구 도치구문에 나타나는 동사들은 의미가 약화되어 거의 *be* 동사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Tanaka*(1997)은 *Nakajima*(1996)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31) (In English) The head *T* in *LI* has a null bound morpheme *be* (null *be*), to which verbs are attached. The amalgamation of

[V+*be*] results in the loss of the *agentive aspects* of verbs.

(Tanaka 1997: 118)

여기서 공 *be* 동사는 의존형태소이므로 공 *be* 동사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동사가 예외 없이 T로 이동을 해야 한다. Nakajima(1996)과 Tanaka(1997)에 근거하여 장소어구 도치구문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하여 논의해 보자.

첫째, 장소어구 도치구문은 수의적이다.

(32) a. John rolled down the hill.

b. Down the hill rolled John.

(32a)에서 [NP V PP] 와 (32b)에서 [PP V NP] 모두가 수용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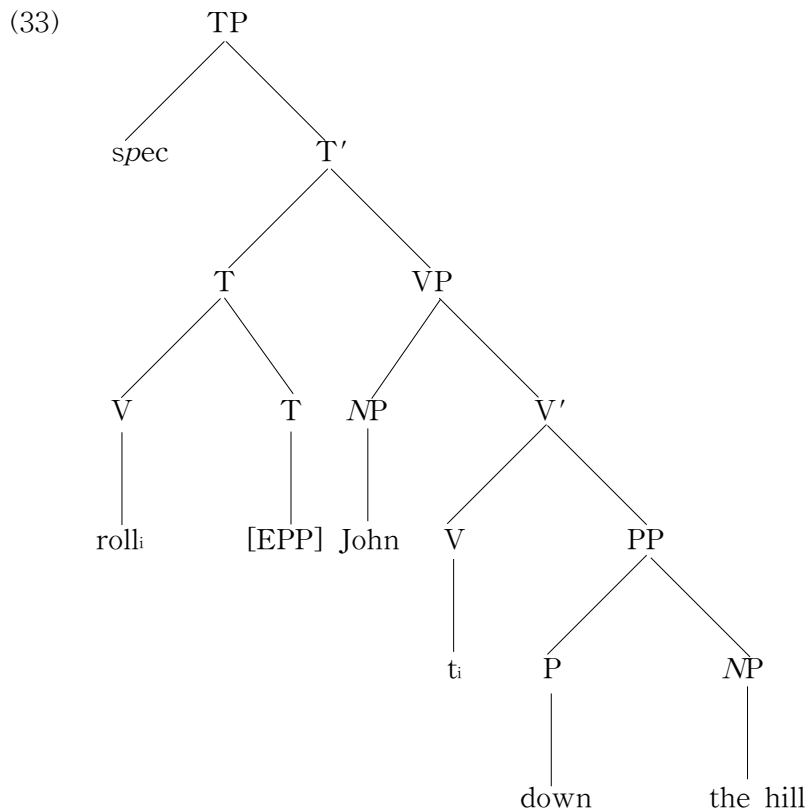
Collins(1997)에 따르면 (32)는 최소성의 원리에 따라 도출 과정에서 경제적으로 더 많은 단계가 요구되는 (32b)는 비문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은 Chomsky(1995)의 등거리 조건(Equidistance Condition)에 의해 해결 될 수 있다.

(33) Equidistance Condition

If α , β are in the same minimal domain, they are equidistance from γ .

(Chomsky 1995)

(33)의 등거리 조건에 따른 (32)의 구조를 살펴보자.



(33)에서 *John*과 *down the hill*은 동일한 핵 *roll*의 투사 범위 안에 있으므로 등거리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T의 지정어 자리로 이들 중 어느 하나가 이동하더라도 최소성 원리를 위반하지는 않는다.

둘째, 장소어구 도치구문은 주로 단순 시제 구문에서 일어난다.

- (34) a. **Down the hall may roll the baby carriage.*
 b. **Out of the house was strolling my mother's best friend.*
 c. **Down the stairs has fallen the baby.* (Kwon 2002)

장소어구 도치구문에서는 T에 의존형태소 공 *be* 동사가 나타나서 이 형태소 실현을 위해 해당 동사가 이동한다고 한다. 만약 (34)에서 *may*, *was*, *has*와 같은 다른 조동사가 나타나서 공 *be* 동사와 먼저 실현되면 *roll*, *stroll*, *fall*등과 같은 동사가 이동할 근거를 잃게 된다. 따라서 장소어구 도치구문은 조동사 결합이 없는 단순 시제 구문에서 가능 하다.

셋째, 장소어구 도치구문은 모든 종류의 동사 유형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주로 비대격동사(unaccusative verb)의 경우에 적용된다.

(35) a. *Through the wedding band shot a marksman.

b. Through the wedding band shot a bullet.

(35a)에서 *a marksman*은 *shot*의 행동주(agent)의 역할을 하고 있어서 격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shot*이 T의 자리로 이동하여 공 *be*동사와 실현이 되면 *a markman*은 격을 점점 받을 수 있는 영역에서 벗어난다. (35b)에서 *bullet*은 *shot*의 대상역(theme)이다. 이 경우에는 격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shot*은 비대격 동사이고 장소어구 도치가 가능하다.

넷째, 장소어구 도치구문은 주절에서 일어난다.

(36) a. *He denied that down the hill rolled the baby carriage.

b. *It is possible that out of the house strolled my mother's best friend.

c. *He regretted that down the stairs fall the baby.

위 (36)의 예문들은 모두 보문소 *that* 안에서 장소어구 도치가 일어났다. 이러한 구문의 분석은 형태론적 특성이 아니라 의미론적 관점에서 간주될 수 있다. Hooper & Thompson(1973)에 의하면 “보문절을 명제로 취하는 술어를 5개로 분류하고 그 중에서 보문절이 단언(assertion)을 나타내는 경우에만 근문 변형(root transformation)이 적용된다.”라고 한다.

다음 (37)과 (38)의 경우들을 보자.

(37) a. The scout report that beyond the next hill stood *a* large fortress.

b. It seems that on the opposite corner *a* large Victorian mansion.

c. The scout discovered that beyond the next hill stood *a* large fortress.

(Hooper & Thompson 1973)

(38) a. *The guide was surprised that beyond the next hill stood *a* large fortress.

b. *I don't believe the report that up the street trotted the dog.

(Hooper & Thompson 1973)

(37)에서처럼 주절 동사가 비사실성 동사(nonfactive verb)인 *say, report, exclaim, suppose, seem*과 같은 동사에서는 보문절에서 근문 변형이 가능하다. 그러나 (38)에서처럼 주절의 동사 *be surprised, don't believe, be unlikely*와 같은 비사실성 동사가 아닌 경우에는 보문절에서 단언이라도 근

문 변형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이론에 따라 (36)은 통사적 이유 때문에 매 입절에서 장소어구 도치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의미적인 측면에서 제약이 존재한다. (Hooper & Thompson 1973)

다섯째, Bresnan(1994)에 의하면 사건이 일어나는 장소가 서술어의 논항인 보어 장소 전치사구(*complement locative PP*)는 도치가 가능하고, 부가 장소 전치사구(*adjunct locative PP*)는 도치가 일어나지 않는다.

(39) a. *Onto the ground had fallen a few leaves.*

b. **Onto the ground had spit a few sailors.*

(40) a. *Into the hole jumped the rabbit.*

b. **Into the hole had excreted the rabbit.*

(39a)에서 전치사구 *onto the ground*와 (40a)에서 *into the hole*은 보어로써 서술어내 논항으로 도치가 가능하다. 하지만 (39b)의 *onto the ground*와 (40b)의 *into the hole*은 문장 내에서 반드시 서술할 필요가 없는 부가어로서 도치가 일어나지 않는다.

3.3.2 주어적 특징

앞서 도출 전치사구 구문의 일반적인 특징들을 살펴보았다. 이 장에서는

도출 전치사구 구문에서의 전치사구가 [*spec*, *TP*]로의 이동 즉, 주어로의 이동이라는 견해에 대해 그 근거들을 논의한다. 다음은 도출 전치사구 구문에서 Hoekstra & Mulder (1990), Bresnan(1994), Levin & Rappaport(1995), Collins(1996), Ura(1996)에 따라 도출된 전치사구가 주어라는 근거들이다.

첫째, 도출된 전치사구는 'that-t' 효과를 보인다.

- (41) a. It's in these villages that we all believe _____ can be found
the best examples of this cuisine. (subject)
- b. *It's in these villages that we all believe that _____ can be
found the best example of this cuisine. (Bresnan 1994)

매입절에서 주어가 순환이동을 해서 상위절로 이동한 경우 매입절에 보문소 *that*이 나타나면 비문이 된다. (41)에서 도출된 전치사구 *in these villages*가 매입절 주어에서 상위문으로 순환이동을 한다. 그러나 (41a)처럼 매입절에 보문소 *that*이 없으면 정문이고, (41b)처럼 매입절에 보문소 *that*이 있으면 비문이다. 이러한 *that-t* 효과는 순환이동의 요소가 주어일 경우만 적용된다.

- (42) a. What do you think (that) John likes _____ ? (object)
- b. Why do you think (that) he left early _____ ? (adjunct)

(42a)에서처럼 매입절에 목적어 *what*, (42b)에서 부가어 *why*가 상위문으로 이동한 경우에는 *that-t* 효과가 적용되지 않는다.

둘째, 도출된 전치사구는 부가의문문 형성(tag-question formation)을 허용한다.

(43) a. John had an accident, didn't he?

b. In the garden is a beautiful statue, isn't there?

일반적으로 부가의문문의 주어는 (43a)처럼 주절의 주어 *John*을 대명사 *he*로 대체한다. 그래서 부가의문문에 나타나는 주어에 의해 주절의 주어를 확인할 수 있다. (43b)에서 부가의문문의 주어 *there*은 주절의 도출된 전치사구인 *in the garden*이 대체된 것이다.

셋째, 도출된 전치사구는 주어 인상(subject raising)을 겪을 수 있다.

(44) a. [He]_i seemed t_i [to t_i be happy].

b. [She]_i appeared t_i [to t_i be scared].

(44)에서 상승동사 *seem*, *appear*들은 보문절의 주어만이 상승되어 주절의 주어가 될 수 있다. (44a)에서 *he*와 (44b)에서 *she*는 기저구조에서 보문절의 주어였다.

(45) a. [On that hill]_i appears t_i [to t_i be located a cathedral].

b. [In this village]_i are likely t_i [to t_i be found the best examples of this cuisine].

(Bresnan 1994)

(45a)에서 *on that hill*은 상승동사 *appear*에 의해 기저구조에서 보문절의 주어자리에서 상승되었다. (45b)에서도 *in this village*가 상승동사구 *be likely*에 의해 기저구조에서 보문절의 주어자리에서 상승된 것이다.

넷째, 도출된 전치사구는 등위절내 공백현상(*gapping*)에 있어서 주어적 특성을 보인다. 등위절내에서 서로 다른 종류의 공백(*gap*)이 생략되면 비문이 된다.

(46) a. She's someone that [_____ loves cooking and _____ hats jogging].

b. *She's someone that [cooking amuses _____ and _____ hats jogging].

(46a)는 등위절내 주어가 생략된 정문이고, (46b)는 등위절내 상위절은 목적어가 생략되었고, 등위절내 하위절은 주어가 생략되었다. 즉, (46b)는 등위절내 다른 종류의 공백이 생략되어 비문이 되었다.

(47) a. That's the old graveyard, in which [_____ is buried a pirate and _____ is likely to be buried a treasure].

b. ??That's the old graveyard, in which [workers are digging_____ and _____ is likely to be buried a treasure]. (Bresnan 1994)

(47a)에서 도출된 전치사구인 *the old graveyard*가 등위절내 서로 같은 요소인 주어로서 공백이 생겨 정문이고 (47b)는 등위절내 목적어와 주어의 공

백이 생겨서 비문이다.

3.3.3 비주어적 특징

지금까지는 전치사구 도출 구문에서 도출된 전치사구가 주어라는 근거를 *that-t* 효과, 부가의문문 형성, 주어 인상, 등위절내 공백현상의 특징들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이 장에서는 전치사구 도출 구문에서의 도출된 전치사구를 주어로 보는 경우와는 달리 주제화를 겪어 [*spec*, *CP*]로의 이동이라 하여 주어가 아니라고 보기는 견해에 대해 Kuno(1970), Stowell(1981), Postal(1997), Coopmans(1989), Bresnan(1994)에 따라 그 근거들을 논의한다.

도출된 전치사구가 주어가 아니라는 근거로 가장 두드러진 두 가지 특징을 보인다. 도출된 전치사구와 동사가 일치 하지 않는다는 근거와 도출된 전치사구는 조동사와 도치를 이루어 의문문 형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선 도출 전치사구 구문에서는 주어 동사의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48) a. In the garden [*stand*/**stands*] two fountains.

b. Down through the hills and into the forest [**flow*/flows] the
brook. (Bresnan 1994)

(48a)의 전치사구 도출 구문에서 도출된 전치사구인 *in the garden*은 단수임에도 불구하고 복수동사 *stand*와 일치를 이루고 있다. 마찬가지로 (48b)

에서도 도출된 전치사구인 *down through the hills and into forest*가 복수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동사는 단수 동사인 *flows*를 취하고 있다. 즉, 도출된 전치사구는 주어 동사와의 일치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둘째, 전치사구 도출 구문에서는 주어와 조동사의 도치를 이루는 의문문을 허용하지 않는다.

(49) a. On the wall hung a Mexican serape.

b. *Did on the wall hang a Mexican serape?

(50) a. Under the bed is good place to hide.

b. *Is under the bed a good place to hide?

(49b)의 도출 전치사구인 *on the wall*과 (50b)의 도출된 전치사구 *under the bed*는 의문문 형식에서 주어와 조동사 도치가 되지 않음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의문문 형성시 도출된 전치사구와 조동사의 도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전치사구 도출 구문은 두 견해에 의해 논의되어졌다. 도출된 전치사를 주어로 간주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이다. 각각의 경우가 설득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주어로 보는 경우에는 비주어적 특징까지도 일반화시켜야 할 것이며, 주어가 아니라고 보는 경우에는 주어적 특징까지 설명이 가능해야 할 것이다.

4. 전치사구 도출 구문의 문제점과 제안

지금까지 전치사구 도출 구문에서 전치사구를 주어라고 보는 견해와 주어가 아니라고 보는 견해에 대한 근거를 알아보았다. 이 장에서는 전치사구 도출 구문을 주어로의 이동으로 보고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대안을 제안함으로써 비주어적 특징까지도 일반화 하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러한 제안은 다른 구문들에게까지 확대, 적용될 수 있음을 살펴보겠다.

4.1 전치사구 이동

도출 PP 구문은 [*spec*, *TP*]로의 이동으로 보고 주어라는 견해와 주제화 (*topicalization*)를 겪어 [*spec*, *CP*]로의 이동이라는 견해가 논의된다.

먼저, 전치사구 도출 구문에서 전치사구의 [*spec*, *TP*]로 이동을 최소주의적 분석을 통해 살펴보자.

(51) *a. Into the room walked Robin.* (Culicover & Levin 2001)

(52) *a. In the distance appeared the towers of a tow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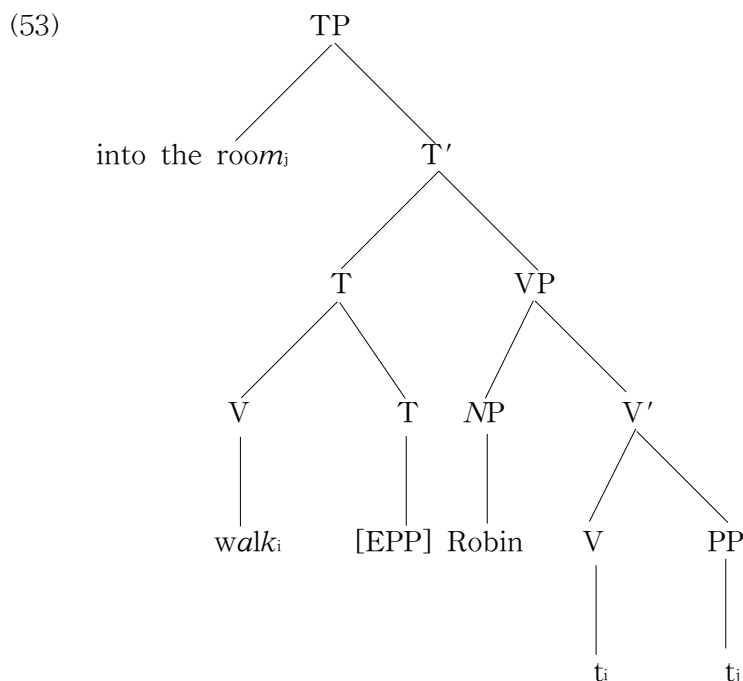
b. In this cave was found an ancient treasure trove.

(Alexiadou & Anagnostopoulou 2001)

(51)에서 도출 전치사구인 *into the room*, (52)에서 *in the distance*와 *in*

*this cave*등은 기저구조에서 동사구내 서술어에서 생성된 문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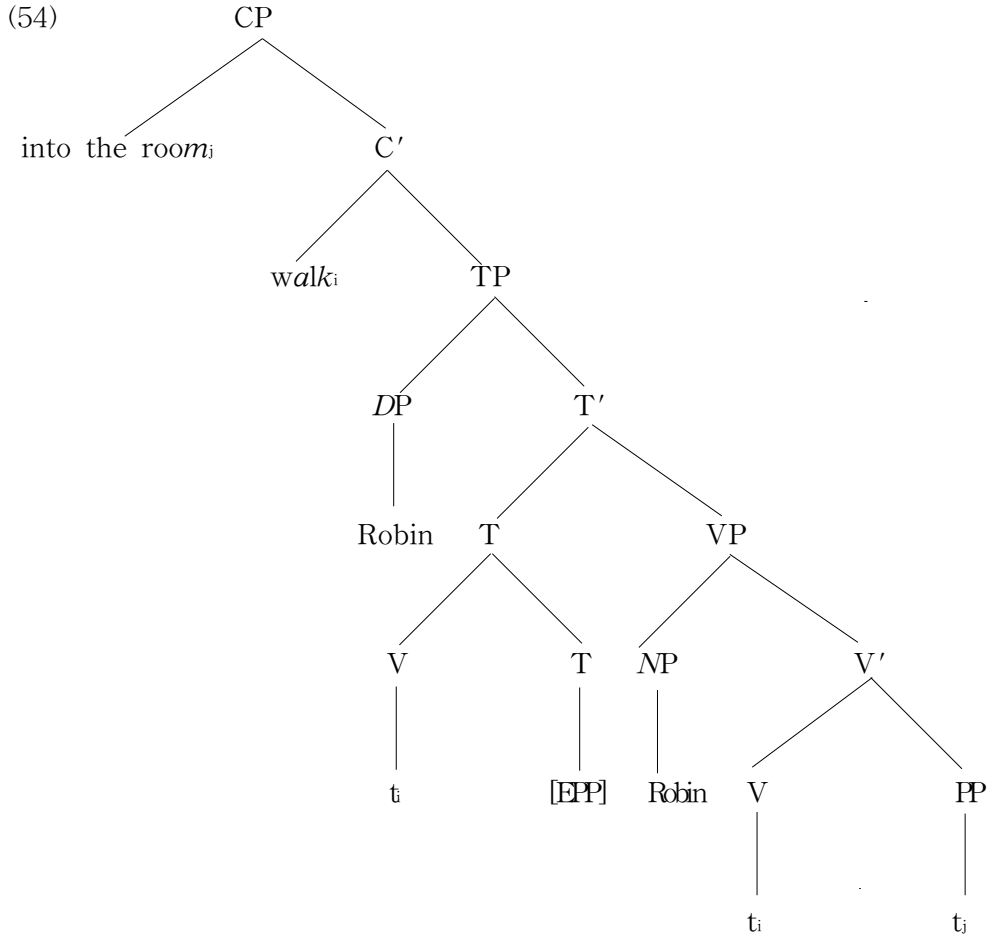
(51a)의 구조를 분석해 보자.



(53)의 구조는 탐색자 T의 비해석성 Φ -자질을 삭제할 목표자를 해석성 Φ -자질을 가진 명사구 *Robin*에서 찾아 일치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T의 비해석성 EPP-자질 제거를 위한 목표자는 전치사구 *into the room*에서 찾는다. 그리고 *into the room*이 비해석성 EPP-자질 제거를 위해 *[spec, TP]*로 이동을 한다. 즉, 전치사구 도출 구문에서 전치사구의 *[spec, TP]*로의 이동에는 일치를 수반하지 않는다.

한편 전치사구 도출 구문에서의 전치사구가 *[spec, CP]*로 이동한다는 주장도 있다. (51a)구문을 다시 분석해 보자.

(51) *a. Into the room* *walked* Robin. (Culicover & Levine 2001)



(54)의 구조에서 탐색자 T가 목표자를 명사구인 *Robin*에서 찾고 T의 비해석성 Φ -자질은 명사구인 *Robin*의 해석성 Φ -자질로부터 값을 받고 삭제된다. 그리고 명사구 *Robin*의 비해석성 구조격은 T로부터 주격의 값을 받고 삭제된다. T의 비해석성 EPP-자질을 충족시키기 위해 T와 앞서 일치가 일어난 *Robin*이 [*spec*, TP]로 이동하여 EPP-자질을 충족시킨다. 그리고 전치

사구 *into the room*에 주제화를 주기 위하여 *into the room*이 [*spec*, CP]로 이동 한다.

4.2 전치사구 도출의 문제점

전치사구 도출 구문에서는 최소주의 이론을 적용하는데 의문점이 제기 된다. 도출된 전치사구가 T의 비해석성 EPP-자질 제거를 위해 [*spec*, TP]로 이동한다면, 도출된 전치사구에 비해석성 자질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비해석성 자질이 활성화가 되어 일치과정이 먼저 수반되고 이동을 해야 한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전치사구 도출 구문에서는 일치가 수반되지 않는 이동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Collins(1997)는 두 가지 접근법을 제시한다. 첫째, 전치사구속의 명사구가 실제로 T의 비해석성 자질들과 점검관계에서 일치를 이룬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의문문 wh-이동이 전치사구를 수반하여 이동하듯이 전치사구 도출 구문에서도 일치를 이룬 명사구와 전치사가 수반 이동(*pied-piping*)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54) *Under which bed did Betty hide the candy?*

(54)의 Wh-이동은 다음의 구조를 가진다.

(55) [_{CP} C[_{did} _{TP}[Betty T[_{vP} hide the candy under *which bed*?]]]]

probe

goal

EPP

(55)에서 C의 강한 Q-자질을 점검해 주는 요소는 wh-구인 *which bed* 이지 만, 실제로 이동하는 요소는 전치사구인 *under which bed* 이다. 즉, 전치 사구의 보어 자질인 *which bed*가 C의 Q-자질과 점검관계를 이루고 수반이 동에 의해 *under which bed*가 [*spec*, CP]의 자리로 이동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에 따라 전치사구 도출 구문도 분석해 보자.

(56) *Down the hill rolled John.*

(57) [_{TP} T[_{VP} John rolled down *the hill*]]

probe

goal

u[Φ]

Φ

EPP

(57)에서 전치사구의 보어인 *the hill*이 T의 Φ-자질과 점검을 먼저 이루어 일치 과정이 수반된다. 그리고 EPP-자질 제거를 위한 이동은 전치사 *down* 과의 수반이동에 의해 *down the hill*이 [*spec*, TP]로 이동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이동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전치사구속 의 명사구가 T와의 점검 관계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전치사구의 명사와 동사가 왜 일치를 이루지 않느냐’ 하는 것이다.

(58) a. *Down the hills rolls John.*

b. **Down the hills roll John.*

(58a)에서 전치사구속의 명사구 *the hills*는 복수이지만 동사는 단수 형태 *rolls*를 이루고 있다. 만약, 전치사구속의 *the hills*가 T의 Φ -자질과의 일치가 선행되어졌다면, (58b)와 같은 문장은 정문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Collins(1997)의 첫 번째 접근법인 전치사구속의 명사구가 T의 비해석성 자질과 일치를 이루고 수반이동을 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에 한계가 있다.

Collins(1997)의 두 번째 접근법은 ‘T의 EPP-자질은 어떤 범주 자질에 의해서도 점점이 가능하다’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Jang(1997)이 다음의 예를 제시하면서 Collins(1997)의 주장을 뒷받침 한다.

(59) a. *Just as surprising was his love for clothes.*

b. *No less corrupt was the ward boss.*

c. *Taking tickets at the door was a person I had roomed with.*

d. *Taking turns, as usual, were his to sisters.* (Emonds 1976)

(60) a. *Gathered pointlessly in the yard stood three women.*

b. *Busy at the lathes sat three women.*

c. *Even closer came a python.* (Bresnan 1994)

(61) a. *In came a man.*

b. *Up jumped a rabbit.*

(59)와 (60)은 [spec, TP]자리에 형용사구와 분사구 *just as surprise, no less, thaking ticktes at the door, taking turns, gthered pointlessly in the yard, busy at the lathes, even closer* 등이 올 수 있음을 보여주고 (61)은 부사 *in, up*이 올 수 있음을 보인다. 위 예문들을 근거로 하여 Jang(1997)은 'EPP요건은 자질점검 현상이 아니라 T의 지정어 자리가 반드시 외현적으로 채워져야 하는 보편적 원리이다.'라고 한다.

그러나 (59)-(61)을 근거로 Collins(1997)와 Jang(1997)의 주장을 받아들이는다면, 다음 예문들은 설명되지 않는다.

(62) a. **By the policeman was found a child.*

b. **From the top of the hill rolls John down.*

c. **Into the hole excreted the rabbit.* (Kim 2001)

(62)는 [spec, TP] 위치에 외현적으로 전치사구들이 차지하고 있지만 Collins(1997), Jang(1997)의 주장과는 다르게 비문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들의 주장이 일관성을 잃게 된다.

4.3 전치사구 도출과 EPP-자질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EPP-자질은 일치를 이룬 범주가 이동을 통해 제거되어지는 비해석성 자질이였다. 그리고 그 일치과정이 형식자질 점검을 위한 통사적 요건이었다. 그러나 전치사구 도출 구문에서는 이러한 통사적 요건의 EPP-자질이 실현되지 않았다.

4.3.1 음성적 변위

전치사구 도출 구문에서는 EPP-자질 제거를 위한 이동에 일치가 수반되지 않았다. 즉, 일치와 이동이 분리되어 일어나기 때문에 최소주의에서 이동은 일치+수반이동+병합이라는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으로 또 다른 관점에서의 연구는 EPP-자질은 형식자질의 점검과는 상관이 없는 음운부 현상(PF effect)이라는 주장이다. 이러한 견해는 대체로 주어의 위치에 명사구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범주가 올 수 있음을 주지하면서, EPP-자질은 어떠한 형식자질 점검도 아닌, 단지 [spec, TP] 자리가 논항성을 지닌 범주에 의해 음성적으로 채워져야 한다는 현상이라고 본다(Park(1999), Jang(2000), Kim(2001), 그리고 Lasnik(2001)).

이 논문에서는 그들의 견해를 수용하여 장소어구 도출 구문에서의 전치사구 이동은 음성적 변위(displacement)를 요구하는 EPP-자질 현상에 의해 [spec, TP]로 이동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63) a. Who_i did [_{t_i} make the cake]?

b. Who_i do you think [_{t_i} [_{t_i} fix the car]]?

c. *Which hill did [down t_i] roll John?

(63)에서 [spec, CP]로의 이동은 통사적 요건에 의한 이동이라면 (63a)와 (63b)의 구문은 T의 통사적 EPP-자질에 의해 *who*가 [spec, TP]로 이동이 있는 후, *wh*-이동에 의해 다시 [spec, CP]로 통사적 이동이 있었다. (63a)와 (63b)의 *who*는 t_i에서 통사적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통사적 이동인 [spec, CP]로의 이동이 가능하다. 그러나 전치사구 도출 구문인 (63c)경우는 비문이 된다. 이것은 VP 내의 투사 범위 속에서의 *down which hill*이 T의 음성적 변위 요구에 대한 EPP-자질제거를 위해 [spec, TP]로 이동하였기 때문이다. 여기서 t_i의 *which hill*에는 통사적 정보는 수반되지 않은 채 음성적 정보만이 수반되어 있어서 또 다른 통사적 이동을 원하는 [spec, CP]로의 이동은 불가능하다. 즉, (63c)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전치사구 도출 구문은 음성적 변위를 요구하는 EPP-제거를 위한 이동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음성적 변위를 요구하는 또 다른 EPP-자질에 대한 제안은 전치사구 도출 구문의 비주어적인 특징들을 주어적 특징으로 일반화 시킬 수 있다. 제3장의 전치사구 도출 구문의 비주어적 특징인 일치문제와 주어 조동사 도치문제에 대하여 다시 살펴보자.

먼저, 전치사구 도출 구문에서 주어와 동사가 일치를 이루지 않는다.

(64) a. Down the hill *roll/rolls John.

b. Under the bed and in the fireplace are/*is not the best combination of places to leave your toys. (Levin 1989)

(64)의 전치사구 도출 구문의 경우에 T가 가지는 비해석성 자질은 Φ -자질과 음성적 변위를 요구하는 EPP-자질이다. (64a)의 경우에 T의 비해석성 Φ -자질은 명사구인 *John*의 해석성 Φ -자질과 일치를 이루고, 음성적 변위를 요구하는 T의 비해석성 EPP-자질은 서술어내에 있는 전치사구 *down the hill*이 [*spec*, TP]로 이동함으로써 제거되어진다. 즉, 전치사구 도출 구문에서의 음성적 변위를 요구하는 EPP-자질은 일치자질 실현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주어와 동사가 일치를 이루지 않는다.

둘째, 전치사구 도출 구문에서 주어와 조동사가 도치된 의문문을 만들 수 없다.

(65) a. *Under the bridge sat John.*

b. **Did_i under the bridge t_i sit John?*

의문문 형성을 위한 주어 조동사 도치 현상이 형식자질인 C의 Q-자질에 의한 통사적 이동 현상이라면, (65b)에서 *did*의 이동은 T-자리에서 C-자리로의 통사적 이동 현상이다. (65a)는 전치사구 도출 구문으로써 통사적 이동이 아니라 음성적 변위를 요구하는 EPP-자질에 의한 이동이기 때문에 *under the bridge*가 [*spec*, TP]로 음성적 이동이 일어났고, *sat*역시 음성적 이동이 일어났다. 따라서 (65b)의 *did*도 역시 *t_i*에서 음성자질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문문을 만들기 위한 통사적 이동을 할 수 없다.

그리고 음성적 변위를 유발하는 EPP-자질에 따르면 앞서 언급했던 (62)의 예문들은 음성적 자질인 *by the policeman*, *from the top of the hill*,

*into the hole*로 [Spec, TP]가 채워져 있어서 정문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62)의 예문을 다시 보자.

(62) a. *By the policeman was found a child.

b. *From the top of the hill rolls John down.

c. *Into the hole excreted the rabbit. (Kim 2001)

여기서 Kim(2001)에 의하면, ‘EPP는 T의 지정어 자리가 논항성을 지닌 XP에 의해 명시적으로 채워져야 한다는 음성적 요건이다.’라고 한다. 위 (62)의 PP들은 서술어의 논항인 보어 장소 전치사구가 아니라, 부가 장소 전치사구들이다. 즉, 음성적 변위를 유발하는 EPP-자질 제거를 위한 이동 조건은 논항성을 지닌 XP이어야 한다.

4.3.2 EPP-자질의 일반화

지금까지의 특징들로 보아 음성적 변위를 유발하는 T의 EPP-자질은 통사적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주어 동사 일치가 일어나지 않고, 주어 조동사 도치의 의문문도 형성하지 않는다. 그리고 [spec, TP]로 음운적 이동이 가능한 요소는 논항성을 지닌 VP의 요소이다.

전치사구 도출 구문에서 T의 비해석성 자질인 EPP-자질은 음성적 변위를 요구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음성적 변위를 요구하는 EPP-자질을 수용함으로써 문두에 허사구, 인용구, 형용사구, 부사구등의 구문들도 전치

사구 도출 구문처럼 동일한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66) a. There is *a man* in the garden.

b. There *are* three books on the desk.

(66)은 허사 *there* 구문인데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가진다.

(67) [TP there T [VP is *a man* in the garden]]

probe	goal
u[Φ]	Φ
EPP	u[case]

(67)에서 탐색자 T는 비해석성 Φ-자질을 가지고 목표자를 *a man*에서 찾는다. *a man*의 해석성 자질로부터 T의 비해석성 Φ-자질은 값을 받고 삭제되고, T는 *a man*의 비해석성 구조격에 주격을 부여한다. T의 비해석성 EPP-자질을 삭제시키기 위해 탐색자 T와 일치를 형성한 목표자 *a man*이 이동하여야 하지만, 배번집합(numeration)에 허사 *there*가 있을 경우에 허사가 T의 EPP-자질을 충족시키기 위해 [spec, TP]에 순수병합(*pure merge*)된다. 따라서 허사 구문에서도 EPP-자질 충족을 위한 조작은 일치와 이동이 분리되어 일어나는 음성적 변위의 EPP-자질에 의한 것이다.

(68) a. "I'm so happy" said Mary

b. "When on earth will the fishing began?" asked Harry.

(68)은 인용구 도출 구문인데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가진다.

(69) [_{TP} T [_{VP} *Mary* [_{VP} *said, "I'm so happy"*]]]

probe goal

u[Φ] Φ

EPP

(69) T의 Φ-자질을 삭제할 탐색자는 목표자를 *Mary*에서 찾고 일치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T의 EPP-자질을 충족시키기 위해 [*spec*, TP]로 이동해야 하는 요소는 T와 일치 관계를 형성한 *Mary* 이지만, 실제로 [*spec*, TP]로 이동한 것은 인용구인 *I'm so happy*이다. 즉, 탐색자와 일치를 형성한 목표자가 T의 EPP-자질을 충족하기 위해 이동하지 않고, 탐색자와 일치를 이루지 않은 인용구가 이동하여 [*spec*, TP] 자리를 채우고 있다. 그러므로 인용구 도출 구문에서도 T의 EPP-자질은 통사적 일치를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음성적 변위를 요구하는 EPP-자질이 적용되고 있다.

(70) a. *More important has been the establishment of legal services.*

b. *Just as surprising was his love for clothes.*

(71) a. *Speaking at today's lunch will be our logical congressman.*

b. *Taking tickets at the door was a person I had previously roomed with.*

(70)과 (71)의 형용사구 도출 구문, 분사 도출 구문의 구조도 다음과 같이 분석되어질 수 있다.

(72) [TP T [VP *the establishment of legal services* has been

probe	goal
u[Φ]	Φ
EPP	
more important]]	

(72)에서 T의 Φ -자질을 삭제할 탐색자는 목표자를 *the establishment of legal services*에서 찾고, T의 EPP-자질을 충족하기 위해서 목표자를 형용사구인 *more important*에서 찾는다. 즉, 형용사구 도출 구문에서도 일치와 이동이 분리 되어 일어났다. 따라서 형용사구 도출 구문에서도 음성적 변위를 요구하는 EPP-자질에 의한 이동구문이다.

(73) *a.* In *came* John.

b. *Up* trotted the dog.

(73)의 부사 도출 구문도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가진다.

(74) [_{TP} T [_{vP} *John* _v [_{vP} *came in*]]]

probe goal

u[Φ] Φ

EPP

(74)의 구문에서 탐색자 T와 일치룰 이루는 것은 *John*이다. 그러나 탐색자 T의 EPP-자질 충족을 위해서 일치룰 이룬 *John*이 아니라 부사 *up*이 [*spec*, TP]로 이동한다. 따라서 부사구 도출 구문에서도 일치와 이동이 분리되어 일어나고 있다. 이 경우 역시 음성적 변위를 요구하는 EPP-자질에 의한 도출구문이다.

이러한 허사구, 인용구, 형용사구, 분사구, 부사구등의 경우들을 통하여 음성적 변위를 요구하는 EPP-자질이 전치사구 도출 구문에만 적용되지 않고 확대 적용되는 것을 보았다. 이러한 구문들을 통하여 음성적 변위를 요구하는 EPP-자질은 일반화 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5. 결 론

영어에서 문장의 주어는 일반적으로 주격을 가질 수 있는 명사만이 가능한 것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문장이 명사 이외의 다른 문법 범주로 시작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의 의문이 있다. 하나는 이러한 비명사구 요소들이 차지하는 자리가 어디인가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 요소들이 주어 기능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비명사구들 중에서 전치사구로 시작하는 문장들을 중심으로 그 특성을 최소주의 이론의 틀 속에서 살펴보았다.

영어 문장에서 주어는 전통문법에서부터 의미적, 통사적으로 여러 정의가 내려지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 주어를 동사구내 주어가설에 의해 [*spec*, *vP*]에서 [*spec*, *TP*]로의 이동하는 요소라는 구조상의 정의를 받아들였다. 구조적 정의에 의한 주어 이동은 일반적으로 T의 비해석성 자질인 EPP-자질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일치 과정을 수반하는 논항이 [*spec*, *TP*]로 이동해야 하는 것으로 간주했다(Chomsky 1995, 1998).

이와 같이 주어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할 때, 전치사 구문은 기저 생성 구조에 따라 일반적으로 두 경우, 즉 도출 전치사구 구문과 비도출 전치사구 구문으로 구분된다. 비도출 전치사구 구문은 최소주의에서 일치 과정을 수반하는 EPP-자질에 의해 [*spec*, *TP*] 즉, 주어자리로의 이동이 일어나며, 따라서 명사구 주어와 유사한 특징들도 보였다. 그러나 도출 전치사구 구문의 경우에는, 일치 과정의 수반 없이 이동의 효과만을 보이고 있어 EPP-자질 충족에 일치와 이동이 분리되어 일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Park(1999), Jang(2000), Kim(2001), Lasnik(2001)은 일치를 수반하지 않고 음성적 이동만으로 EPP-자질이 충족되는 또 다른 EPP-자질을 제안했다.

본 논문에서는 그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전치사구 도출 구문을 음성적 변위를 요구하는 EPP-자질에 의해 일어나지만 일치가 수반되지 않는 [spec, TP]로의 이동으로 간주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음성적 변위의 EPP-자질은 전치사구 도출 구문의 비주어적 특성인 주어 동사 불일치 문제와 의문문 형성에서 주어와 조동사가 도치되지 않는 현상들도 설명이 가능하였다. 또한, 이러한 음성적 변위의 EPP-자질은 일치와 이동이 분리되어 일어나는 허사, 인용구, 형용사구, 부사구등에 확대 적용되어 거의 모든 비명사구들이 [spec, TP]로의 이동이 가능함을 보여주었다.

이와 같이 영어 문장에서 주어를 [spec, TP]라는 구조적 정의로 보고 음성적 변위를 요구하는 EPP-자질을 제안함으로써 주어는 전형적으로 명사구라는 정의와는 달리 전치사구, 허사구, 인용구, 형용사구, 부사구등의 비명사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명사구만이 가질 수 있는 격 문제, 일치 문제 또한 주어를 정의함에 있어서 분리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더 나아가 통사범주와 의미범주로만 국한되어 있던 주어의 정의에 대해 또 다른 일반화를 가져다 준 것으로 본다.

참고 문헌

- 권기양. 2002. 장소어구 도치구문과 EPP. 「현대 문법 연구」 27, 37-56.
- 김광섭. 2000. 비 한정사구 주어에 관한 연구. 「생성 문법 연구」 10, 37-69.
- 김용하. 2004. 처소어구 도치 구문과 불완전 일치. 「현대 문법 연구」 37, 113-136.
- 박정수, 안동환. 2001. 분리보문소구와 장소의 부사구 도치 구문. 「언어과학」 8, 5-23.
- 이숙희. 2001. 통사적 EPP와 음운적 EPP. 「생성 문법 연구」 11, 251-274.
- 이은정, 안동환. 2003. 영어 도치 구문과 EPP. 「새한 영어 영문학」 45, 317-337.
- 홍성심. 2002. 영어 non-DP 주어의 구조적 위치. 「언어와 정보」 6, 1-14.
- Aarts, B. 1997. *English Syntax and Argumentation*. New York: St. Martin's Press.
- Alexiadou, A. and E. Anagnostopoulou. 2001. The Subject in Situ Generalization and the Role of Case in Driving Computations. *Linguistic Inquiry* 32, 193-231.
- Bresnan, J. 1994. *Locative Inversion and the Architecture of University Grammar*. *Language* 70, 72-131.
- Chomsky, N. 1995. *The Minimalist Program*. Cambridge, Mass: MIT Press.

- Chomsky, N. 2001. *Derivation by Phase*. M. Kenstowicz (ed). Ken Hale: *A Life in English*, 1-52. Cambridge, Mass: MIT Press.
- Collins, C. 1997. *Locative Economy*. Cambridge, Mass: MIT Press.
- Coopmans, P. 1989. Where Stylistic and Syntactic Processes Meet: *Locative Inversion in English*. *Language* 65, 728-751.
- Culicover, P. and B. Levin. 2001. Stylistic Inversion in English: A Reconsideration. *Natural Language and Linguistic Theory* 19, 283-310.
- Emonds, J. 1976. *A Transformational Approach to English Syntax*. New York, NY : Academic Press.
- Heekstra, T. and R. Mulder. 1990. *Unergatives as Copular Verbs: Locational and Existential Prediction*. *The Linguistic Review* 7, 1-79.
- Hooper, J. & A. Thompson. 1973. On the Applicability of Root Transformations. *Linguistic Inquiry* 4, 465-497.
- Jang, Y-J. 2000. Verb-Second Phenomena in English. *Studies in Generative Grammar* 10, 181-208.
- Jaworska, E. 1986. Prepositional Phrases as Subjects and Objects. *Linguistic Inquiry* 7, 89-150.
- Kim, S-W. 2001. A Study on EPP in the Minimalist Program: the EPP as a PF Requirement. *Studies in Modern Grammar* 24, 47-66.
- Kim, Y-H. 2004. *Locative Inversion and Defective Agree*. *Studies in*

- Modern Grammar* 37, 113-136.
- Kuno, S. 1970. Constraints on Internal Clauses and Sentential Subjects. *Linguistic Inquiry* 2, 333-378.
- Levin, B. and M. Rappaport. 1995. *Unaccusativity: At the Syntax-lexical Semantics Interface*. Cambridge, Mass: MIT Press.
- Park, S-H. 1999. On the EPP-feature and Uninterpretability. *Studies in Generative Grammar* 9, 199-227.
- Postal, P. 1977. About a Non-Argument for Raising. *Linguistic Inquiry* 8, 141-154.
- Radford, A. 2003. *Minimalist Syntax and The Syntax of English*. ms. University of Essex.
- Stowell, T. 1981. *The Origins of Phrase Structure*, Ph.D. Dissertation, MIT.
- Ura, H. 1996. *Multiple Feature Checking: A Theory of Grammatical Function Splitting*. Ph.D. Dissertation, MIT.